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무엇이 더 중한가 성경: 마태복음 6장 25-34절

Tag: 행복, 만족 >Happiness & Satisfaction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
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
나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
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
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
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6:25-34)

25-26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걸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얼매일 것 없이 자유롭게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27-29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센티미터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드레서 열 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30-33 아무도 보아 주지 않는 들꽃의 걸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 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 주실 것이다.

34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덕적 접근이나, 종교적인 해석이나, 경제적인 접근, 또는 심리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해석에 온전히 접근하는 해석으로는 좀 부족하다.

도덕적 해석; 세속적인 것들, 요즘 예를 든다면 맛집 탐방이나, 더 나아가 명품에 몰입하는 것은 복된 행동이 아니다. (맛집이나 디자이너 들에게는 불편한 말)

종교적 해석; 먹고 마시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풍년이 된다.

경제적인 해석;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삶을 위한 경제적 활동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욕심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과도하고 빚나간 경제활동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심리적 해석; 남들 부자 되는 것 보고, 나만 뒤쳐질 수 없다는 세속적인 염려에서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너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트러뜨릴 것이다.

대부분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원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은 것일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은 비교급을 사용하셨다. 목숨은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음식도 중하지만, 목숨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뜻 .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한가.

- 물론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부실하다면 건강에 좋지 않다.
- 몸은 옷으로 가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 그러므로 음식이나 옷은 인간의 삶에(생명이 아닌) 필수적 요소.
- 다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은 오히려 단순한 것일수록 좋다.
-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상적인 맛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지를 찾아 유랑을 떠난다.
-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 값은 그리 비싸지 않다. 그러나 치장이라는 의미에서는 그 값이 작다 할 수 없다.

-주거시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은 비싸지만, 수도권만 벗어나면 수도권과 비교할 때 헐값이다. 수도권은 왜 비싼가? 욕심 때문이다. 땅 주인의 욕심 때문에 부르는게 값이고, 아파트를 지으면 더 비싸진다. 왜냐면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대장동 사건 때문에 너무 비싸진 것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문제는 깡투자. 깡투자가 가능한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산증식을 노릴만큼 은행이자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값싼 이자만 아니었어도 불가능한 문제.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다. 금액이 커서 그렇다.

그래서 전세값을 더 높게 올리고 아파트 값을 더 높게 올린다. 욕심이 충족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고금리 시대가 되니 그 모든 거품들이 빠지고 이자는 족쇄가 되어 돌아 왔다. 욕심이 고금리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26차례나 시행했으나, 아무도 심지어 정책을 입안하는 자도 그 성과를 믿지 않았다.(전 청와대 대변인 후석 김의겸씨) 성난 국민들 달래느라 돈은 마구 풀면서 유동성이 커지자 부동산은 더욱 천정부지로 올랐다. 수요가 많으니 합리적 공급이 많았더라면 부동산이 안정되었을 텐데 그동안 10년동안 아파트 재건축을 막던 서울 시장이 교체되자 이제 부랴부랴 재건축을 서둘렀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망을 위해서 헛된 일에 올인하다가 낭패를 당한 꼴이다.

-그러나 부동산이 피크 때 집 팔아서 몰래 롤루랄라 사는 자들이 많다. 신문에 나오지 않을 뿐이다.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았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32절과 33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

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탐심을 쫓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 예수님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어 설명하신다.
-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의식주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 다만, 이방인들처럼 세속적인 가치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
- 하나님은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너희도 맛집 투어 할 수 있다. 너희도 명품 가방 가질 수 있다. 너희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다만, 그것들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지는 말아라.

- 그것을 위해서 워커홀릭에 빠지지 말아라.
-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인은 이상한 워커홀릭에 빠져 있다는 보고도 있다. 오래도록 일하기는 하는데, 정말 업무에 몰입하는 자들은 18%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있다. 전형적 개미형 일꾼들이다.
- 진정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가시적 성과에 만족한다는 뜻.

*왜 이러는 걸까요? 무엇이 더 중한지를 놓쳤기 때문이다.

*무엇을 놓쳤나? 하나님의 시민들이여!

- 당신에게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이 있는가?
- 당신의 일은 구원 받았는가? 당신의 일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 있는가?

*그러면 누가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있는가?

-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난(6.25사변 등)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나, 욕심 채우기에 있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허망한 무지개를 쫓거나, 신세를 한탄하며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가난이 찾아온다.

*그러나 의를 위해 핍박을 받거나, 의를 위해 세속적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나, 불쌍한 사람을 돕느라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도와 주신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자녀를 잘 돌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도와 주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 복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

33 ...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세속적인 자들보다 더 잘 살게 해 주신다!)

*모든 인생은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사느라 고달프다. 그래서 이 고달픈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꿈만 꾸는게 아니라 특별한 한방을 꿈꾼다.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위험에 도전한다.(교인들도 마찬가지...)

*무모한 도전은 염려를 낳는다. 생각 뜻밖의 위험도 찾아온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본질을 찾으려면 살 수 있다**.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된다**. 위기의 순간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34절에 반전이 있다.

오늘 괴롭다고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되더라도 그날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일은 오늘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예측보다 더 힘겨울수도 있어.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신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살았다면, 너는 그 한 날을 만족스럽게 산 것이다.

-김혜자 그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로 말문을 열었다.

-때는 2019 백상예술대상 수상식. TV부문 대상 '눈이부시게'. 주인공 김혜자씨가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했던 첫마디. 그리고 그 드라마 마지막 회 나레이션을 읽는 것으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기도)

우리의 탐심을 회개합니다.

무모한 도전들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한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방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뉘우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성경: 시편 49편

Tag:

1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못 백성들이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라

고라자손;고라.민16. 제사장직을 구하는 레위인. 땅을 지어 반역하다
땅이 꺼져 몰살함. 그 자손들은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됨. 그 일부
는 찬양대가 됨.

2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
리로다

-49장은 잠언과 같은 시다.

-명철;understanding

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
로다

-비유;격언들.(아마도 솔로몬의 잠언들을 읽었으리라)

-오묘한 말;숨겨진 지혜들을 풀어 내리라.

5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환난이 나를 에워싼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삶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

-그러나 내가 지혜를 깨달았으니 그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
고, 방패가 됨.

-내가 비록 위험한 길을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

6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부유함을 자랑하는 졸부들.

7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부유함이 자기나 형제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대부;깡이나 돈, 의리, 교활함이 자기와 가정을 지킬 것 같지만 결국 그러지 못함. 그들은 서로 죽이고 죽임당함.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함;죄를 사함받기 위한 어린양을 구할 헌금을 말함.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음.

8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남. 결국 돈으로 구원을 얻지 못함.

9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다

11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들은 후손을 남기고 자신의 이름이라도 남기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오직 구원받은 자만 존귀하다.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

13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의 말을 기뻐하지 말라.

14 그들은 양 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이름다

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5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나를 스올에서 건져내심. 후에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하게 됨. 고라자손이 예언적 노래를 부름.

16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7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18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 49:1-20)

12절 말씀을 마치 후렴구처럼 사용함.

고라 자손의 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성경)

1-2

새겨들어라. 다들 귀 기울여라. 땅에 사는 자들아, 이것을 놓치지 마라.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함께 들어라.

3-4

지혜를 너희 앞에 있는 그대로 펼치니 내 안에서 무르익은 삶의 깨달음이다. 내가 현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으니 하프를 뜯으며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 주리라.

5-6

적의가 나를 에워싸고 불한당들이 나를 괴롭히며,
거만한부자들이 나를 푸대접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7-9

참으로 인생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삶을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블랙홀 속에 떨어질 운명에 대비할 수 없다.

10-11

누구나 볼 수 있으리라. 제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인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재주를 뒤로하고 그들의 새집, 관 속에 들어갈 분이다. 오직 그들의 영원한 주소는 공동묘지다.

12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 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13-15

이것은 순간을 위해 사는 자들, 제 몸만 돌보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이다. 죽음이 저들을 양 떼처럼 몰아 저승으로 보내 버리니, 그들은 무덤의 목구멍에 떨어져 사라지리라. 쇠약해지다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묘지의 묘비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마수에서 구해 내시고 아래로 팔을 뻗어 잡아채신다.

16-19

그러니 누가 부자가 되어 명성과 부를 쌓아 올려도 감동하지 마라. 저들은 명성과 부를 고스란히 남겨 둘 뿐 가져가지 못 한다.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

람들이 저들의 성공에 찬사를 보낼 바로 그 순간에, 저들은 가족 묘지에 들어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 하리라.

20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